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후원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1998년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부터 먹이자며 시작된 '사랑의 친구들'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한 사랑으로 10년이라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그리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베풀어주시는 분들의 뜻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 12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임직원 드림

(사) '사랑의친구들' 창립 10주년 기념 자료집 출간을 위한 사료를 모집합니다

2009년 2월 출간 예정인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들어갈 사료를 찾습니다. 1998년 8월 창립 전후와 지난 10년간 '사랑의 친구들'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집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이나 자료, 글이 있으신 분은 2008년 12월 말까지 '사랑의 친구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folove831@korea.com
전화 : 02)734-4945~7 팩스 : 02)734-4948
주소 :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

발행인 : 김성수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08년 12월 / 통권 제 27 호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이순례 (사랑의 친구들 이사·학교법인 금성학원 상무이사)

1998년 8월 10일,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이 창립되었다. IMF 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였고 당시 결식 아이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던 모임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사랑의 친구들'은 많은 일을 했다. 결식아동돕기, 공부방 돕기, 북한 아이들 돕기 그리고 설날을 앞두고 사랑의 떡국나누기 등 바자 때는 국내는 물론 먼 이국에서도 고국의 행사에 뜨겁게 호응했다.

지난 10년을 돌아켜볼 때 이제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사 하나하나의 실무진의 씩씩한 노력과 이웃들의 관심 어린 호응 속에서 오늘이 왔다.

2008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을씨년스러운 뉴스들로 가득하다. 어느 뉴스 앵커는 요즘 뉴스 전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경제로 요동을 치고 있으니, 더구나 뉴욕의 월가가 감기를 앓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독감을 앓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이 시기가 결코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지갑을 푹푹 닫고 있다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모두 그렇게 이야기 하니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아예 가슴까지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론 그런 삭막한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소비를 못

살리면 더 큰 위기가 온다고 하고, 지갑을 닫을수록 경기침체는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내수 부양경쟁,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공부한 어느 분이 한 말이 요즈음은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운, 나쁜 운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쁜 운을 만나 고통스러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덕행을 쌓아가면서 그 시기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올해도 어김없이 설날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친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곳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떡국을 나눌 것이다.

열자. 가슴부터 열자.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이 온기로 얼어붙은 기온을 녹여내리자. 그리하여 어느 해보다도 많은 떡국을 나누는 기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 기적 또한 만드는 자의 것이 아니겠는가. 밖에선 2008년의 첫눈발이 흩날리고 있는 고즈넉한 오후다. (*)

따뜻한 참여와 사랑으로 모은 11번째 '나눔'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 9월 27~28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서 열려



'사랑의 친구들'의 11번째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이 지난 9월 27~28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과 앞뜰에서 열렸다. 글로벌어린이재단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후원한 이번 바자에서는 100여개 업체가 협찬한 질 좋은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다. 이를 동안 열린 바자에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임직원과 가족들로 구성된 72명의 자원봉사단과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랑 나누기 바자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1억 8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지방특산물, 개성있는 아이디어 제품들 선보여

'2008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은 전례가 없는 볼경기도 불구하고 질 좋은 상품 구성과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선보여 바자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시

선을 붙잡았다. 류관순기념관 안쪽에 차려진 의류매장에는 오은환, 설유행, 노라노, 한혜자, 최윤옥 등 국내 탑 디자이너들의 고급의류와 핑, 라디오가든, 막스앤스펜서 등 캐주얼 의류 외에도 올해 대경실업과 이끌린스가 처음 선을 보였다.

기념관 앞뜰에는 미국, 홍콩, 일본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 150여 명이 현지에서 구입한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악세사리 등 다양한 물품들을 내놓아 바자를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사들도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선보이면서 바자회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었다. 천연염색 의류, 기능성 화장품, 휴대용 먼지제거기, 바이오세라믹 용기 등 값싸면서 실용적인 제품들이 인기를 모았다.

경매에서 물품을 구입한 최금란씨가 ▶ 이희호 고문, 권양숙 여사, 방숙자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하는 행운을 얻었다.



-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저자사인회 모습.(위)
- ▶ '사랑의 친구들'만의 독특한 코너 '꼬끼리 장터'. 쓰던 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오른쪽 위)
- ▶ 전라남도 특산물 코너의 모습.(왼쪽)
- ▶ 글로벌어린이재단의 회원들이 참여한 해외특산물 코너.
- ▶ 외환은행 나눔재단 권택명 상무이사 가 행운권을 추첨하고 있다.



지방특산물 코너에서는 신안천일염을 비롯해 전라남도의 특산품인 쇠고기와 과일, 김치, 젓갈, 다양한 건어물 등을 선보이고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지방특산물도 골고루 인기를 끌었다.

한명숙 전총리의 저자 사인회도

바자 첫날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를 바자에 기증하고 오후 1시부터는 저자 사인회를 열어 도서 구입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명해주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를 기증해 바자현장에서 함께 판매하였다. '사랑의 친구들'의 명예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김혜수 씨도 부스를 따로 마련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의류와 구두, 악세사리 등을 판매해 112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

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육개장, 김치전, 녹두전, 족발과 순대 등을 팔며 후원금 모금에 동참했다.

저명인사 기증품 경매와 행운권 추첨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에는 해마다 주한 대사관들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왔다. 올해에는 콜롬비아, 칠레,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미국, 뉴질랜드, 카타르,





▲ 먹거리 장터에서 김치전을 팔고 있는 박영숙 전 총재의 모습.(위)
▶ 외환은행 임직원들과 가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72명이 이틀 동안 물품을 판매했다.(왼)
▶ 바자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코너와 종이접기 코너의 모습.(오른쪽)

영국,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참여해 자국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물품을 판매했다.

방송인 송도순 씨의 진행으로 더욱 유명해진 저명인사 기증품 경매는 둘째날인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서울을 방문중인 권양숙 여사도 잠시 시간을 내어 바자회장을 찾았다. 권양숙 여사는 경매에 앞서 “퇴임 이후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결같은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희호 여사님의 아름다운 본보기에 진심으로 존경을 보낸다”고 인사했다.

이희호 고문,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증품과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 부인의 브로우치 등이 선보인 가운데 경매가 진행됐다. 이날 경매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두 영부인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가 제공됐다.

경매에 이어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가 1등 상품인 외환은행 1백만 원권 예금증서의 주인공으로 당첨된 것을 비롯해 행운권을 구입한 사람 중 모두 247명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2008 '사랑나누기 바자한마당' 수입내역		
기업 협찬 물품 판매금	57,387,130원	총 96개사 참여
명사 기증품 코너 및 코끼리 장터 판매금	11,100,600원	
팔도 특산물 판매금	3,100,000원	
글로벌어린이재단 미주 특산물 판매금	70,820,000원	
먹거리 판매금	3,585,700원	
행운권 판매금	12,033,000원	
성금	18,280,000원	
주한 외국인 코너	2,177,000원	
계	178,483,430원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 - 교사교육 진행

10월 9일 ~ 11월 13일, 공부방 교사들의 논술지도 역량 강화 위해



C&A 교육그룹의 이재중 이사장이 '독서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다. 6회의 교육을 모두 마친 교사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었다.(아래)

독서의 기회가 적고 논술교육이 취약한 것이 대부분 공부방의 현실이다. 재정 또는 인력의 문제로 지도가 힘든 공부방의 논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친구들'은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을 통해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논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논술교실은 지난 한해 동안 서울의 공부방 5곳에서 진행되었다. C&A교육그룹 산하의 무지개논술아카데미의 전문강사들이 2개의 초등학생 그룹과 4개의 중고등학생 그룹으로 나누어 교육한 결과 주체적이며 지속적인 논술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는 공부방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사교육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 공부방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기간은 6주, 12시간으로 정하고 교육주체인 C&A교육그룹의 강사진이 서울에서만 강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장소는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10월 9일부터 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교사

교육에는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 및 독서의 이해를 시작으로 토론수업의 실제에 있어서 사고력, 어린이 철학, 역사등으로 나누어 전문가가 각각 강의하고 2회에 걸쳐 Cross Examine Debate Association 토론을 진행했다. 매 수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토론수업 형식으로 교육에 참여한 공부방 교사가 학생 역할을 하며 강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사랑의 친구들'은 공부방 교사들의 논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2-3회에 걸쳐 교사교육을 더 진행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신청을 받는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 영어와 친해지기

2008년 한 해동안 3차례, 78개 기관 참여해



2007년부터 시작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사교육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들이 영어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미래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1~2회 공부방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사랑의 친구들'이 전체 진행을, 이화여대에서 서울지역 공부방에 자원봉사자를, '미래회'에서 1년간 예산을 지원한다.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이 결정되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교재와 교육기자재(CD플레이어)와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평가회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성남우리공부방 이현숙 대표는 "A,B,C도 모르던 아이들이 수업과 캠프를 통해 단어를 읽고 쓰고 영어노래를 흥얼거린다. 중학교에 가서도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일 때 너무나 기뻐다."고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



강원도 청태산에서 열린 2007 영어캠프.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영어문장을 익히고 있는 공부방 어린이들.

한 어린이의 변화한 모습을 소개했다.

지원 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1년에 4차례 지원되며, 영어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성취와 노력을 격려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한차례 진행된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1년간의 영어교육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학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도록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친근하고 오픈된 놀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2년 동안 7차까지 진행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의 지원을 받은 공부방은 총 78곳으로 이에 참여한 어린이는 연인원 1,821명에 달한다. 4회 이상 지원 받은 기관이 21곳으로 지속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여기관 및 아동수		
1차 (2007.3~6)	8개 기관	76명
2차 (2007.6~9)	25개 기관	216명
3차 (2007.9~12)	35개 기관	284명
4차 (2007.12~2008.2)	34개 기관	258명
5차 (2008.3~6)	47개 기관	368명
6차 (2008.6~9)	38개 기관	292명
7차 (2008.9~12)	43개 기관	327명

공부방에서 온 글

나의 미래도 영어와 함께 키워나갈 거예요!



김이령 · 송성연
독립문교회공부방 5학년

처음 공부방에서 '미래를 여는 영어 교실'을 한다고 했을 때, 영어를 잘 모르던 우리는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만 하던 영어공부를 공부방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싶었다. 드디어 '사랑의 친구들'에서 책이 오고 영어선생님을 만났을 때, 파란색의 영어책은 너무 예뻐!! 그러나 어려울 것 같아서 또다시 걱정이... 하지만 이 예쁜 책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a says 애애, b says 브브..." 파닉스를 배우며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며 많은 문장들이 쉽게 외워지고, 알파벳 자식으로 문장과 단어를 우리 스스로 만들며 익힐 수 있었다. 또 게임을 하며 더욱 재미있게 배우고 영어연극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테이프와 CD를 들으며 원어민 발음으로 발음연습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공부할 때마다 맛있는 것을 시주셔서 더욱 신나게 공부할 수 있었다. 처음 영어교실을 시작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권이 다 끝나가고 있다. 한권 한권 끝날 때마다 우리의 영어실력은 차츰차츰 늘고 있다.

지난 봄, 우리는 공부방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 영어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JET시험을 보게

되었다. 갑자기 보게 되어 따로 공부하지는 않고 평소 영어교실에서 배운 실력으로 시험을 봤는데 시험장소로 갈 땐 정말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가슴이 쿵쿵 뛰었다. 시험은 생각보다 쉬웠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여 여름방학에는 필리핀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게 되어 무척 기뻐지만 막상 필리핀에 도착하니 벌레도 많고(도마뱀과 같이 자야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서 생각보다 힘들었다. 밤에는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하지만 필리핀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스포츠 활동도 즐거웠고 주말에는 필리핀 관광도 하여 신이 났다. 하지만 공부는 좀 재미없었다. 하루에 몇 십 개씩 단어를 외워야 하니 '미래를 여는 영어 교실'이 그리워지기까지 했다. 어느덧 한달이 지나고 필리핀 생활에 익숙할 때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제 필리핀 선생님들과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필리핀 음식들이 그리워진다. 언제 또 가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영어를 잘 못했던 우리가 해외연수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미래를 여는 영어 교실' 덕분인 것 같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공부방 선생님들과 '사랑의 친구들'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을 쑥쑥 높이고 외국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다. 또 우리의 꿈을 키워나가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



여름방학! 여름캠프! 우리들은 날마다 자란다!

2008년 연합캠프 지원사업 9개 연합캠프 지원 마무리돼

‘사랑의 친구들’이 지원하는 2008 연합캠프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진행됐다. 올해로 6번째 인 연합캠프 지원사업은 영화배우 문근영 씨의 후원금을 받아 공모를 통해 신청한 25개 캠프 중 9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또한 대학생자원봉사단 수퍼써니의 회원도 160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캠프 진행을 도왔다.

곡성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뽀뽀(Fun Fun)한 캠프’

8월 7일~9일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심청문화센터

- ★ 원동, 주산, 현정, 백곡, 석곡, 목석죽, 꿈나래, 곡성, 전남과학대지역아동센터(9개 기관 184명)
- ★ 한정된 공간, 한정된 관계, 한정된 놀이를 넘어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한 캠프. 센터의 어린이들 설문조사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조화시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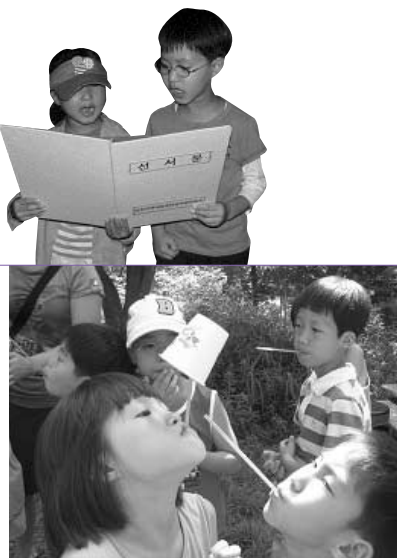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

‘2008 여름들살이 공부방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 캠프’

8월 6일~8일 ▶ 강원도 화천 광덕그린농원

- ★ 부평, 삼산해오름, 서로사랑, 오순도순, 햇살, 숲숲, 송현샘, 해와달, 새봄, 하늘씨앗, 간석, 구월, 새벽, 웅기중기지역아동센터(14개 기관 293명)
- ★ 학교와 공부방 생활이 전부인 공부방 어린이들은 방학이면 많은 시간을 공부방에서 생활하고 있어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일반 어린이들과 비교하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리고 체험하면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하여 어린 날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산지부

‘부산사랑 나라사랑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8월 18일 ~ 20일 ▶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 ★ 꿈샘 공부방, 은누리지역아동센터 외 28개 기관 636명
- ★ 문화재 및 중요시설을 체험함으로써 문화의 이해와 향토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놀이를 접목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과 학습활동, 적절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의정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평화캠프’

8월 5일~7일 ▶ 경기도 가평군 MT마을

- ★ 나눔, 무지개, 사랑, 예사랑, 화평지역아동센터(5개 기관 150명)
- ★ 공동체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름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가 먼저 평화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다름 속에서 다른 친구들을 돕는 기회를 배워보는 캠프로 꾸며졌다.



수원열린교실

‘통일의 꽃을 피워요’

8월 21일~23일 ▶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

- ★ 고등동, 고색동, 구운동, 송죽동, 매탄동수원열린교실(5개 기관 64명)
- ★ 현재의 어린이들이 성장한 미래사회는 분명 통일된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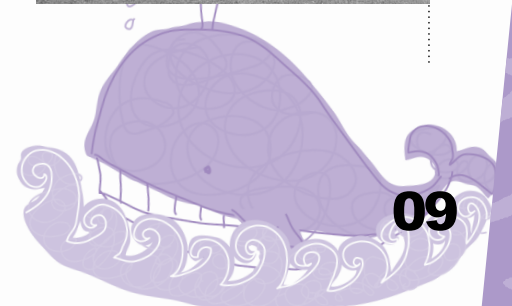


논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Yes I Can 여름캠프’

8월 4일~6일 ▶ 전북 완주군 산북리 산북초교

- ★ 강경, 성남, 하늘샘, 하람, 한빛, 희망지역아동센터(6개 기관 138명)
- ★ 논산시에 공부방이 10개가 넘지만 연합캠프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고 대부분이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이다. 따라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배타적이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부방에서 접하기 힘든 놀이문화를 맘껏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제주역아동연합캠프 '혼디모영'

'세계자연유산 우리 제주 바로 알기'

8월 6일~8일 ▶제주도 제주시 비자림청소년수련관

- ★ 꿈꾸는, 더불어숲, 우리동네, 빛과소금, 푸른꿈작은공부방(5개 기관 171명)
- ★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연합활동을 통해 각 센터를 벗어난 단체에서의 규율과 규칙을 배우고 나와 더불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배려했다.



가톨릭공부방모임

'2008 행복한 여름이야기 Let's go together'

8월 11일~14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체험학습장

- ★ 강릉마리아, 강릉보람, 동해꽃망울, 동해해맑은, 주문진 도움미술, 남양주퇴계원 지역아동센터, 주문진 사천초등삼덕분교(7개 기관 134명)
- ★ 타지역 체험의 기회도 거의 없고 방학에도 특별한 계획 없이 보내는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진행되는 공동체생활은 특별한 경험이 된다. 어린이들 대부분이 캠프 경험이 없고 그룹활동과 새로운 체험이 부족한 면을 감안해 공동체성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마음성장 캠프 I can... We can'

8월 12일~ 14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바다의별수련관

- ★ 참나무학교, 내일을 여는 교실, 도토리학교, 십정동, 예꿈마을, 푸른나무교실, 늘푸른교실, 산곡동 어깨동무, 푸른솔생활학교 지역아동센터(10개 기관 118명)
- ★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과 게임중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빈곤지역의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마음성장 놀이를 통해 자존감 향상을 꾀하며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게임상에서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놀이로 진행됐다.



하우스 투어에 참여해 보세요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세상' 기금마련 위해



최순우씨 한옥 뒷뜰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왼쪽) 주한 레바논 대사 부부와 하우스 투어를 기획한 백봉현 씨(오른쪽)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박금옥 사무총장이 기념선물을 전달하고 있다.(원 안)

하우스 투어는 '사랑의 친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성장훈련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다. 이야기가 있는 집, 개성있는 집을 가진 집주인은 자신의 집 문을 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선보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가비를 내어 후원금으로 조성케 하는 것이다.

4월과 10월에 한번씩 일년에, 두차례 열리는 하우스 투어. 2008년 한해 동안 모두 9명의 저명인사가 자신의 집을 열고 일반에 그 모습을 공개했다. 참가자들은 좀처럼 방문하기 힘든 대사관저와 테마가 있는 저명인사들의 집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우스 투어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49명, 후원금으로는 모두 507만원이 모아졌다. 이 후원금은 전액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에 지원된다.

5차 (4월19일)

- (이화동) 이희장
- (삼청동) 부영이박물관
- (동빙고동) Hussein Rammal 주한 레바논대사 관저
- (한남동) N.Parthasa rathi 주한 인도대사 관저

6차 (10월11일)

- (동빙고동) 제인 콤즈 주한 뉴질랜드대사 관저
- (반포동) 민경우 명지대 예술체육대학장 덕
- (와룡동) 한국전통음식연구소 떡박물관
- (성북동) 이재준 씨 한옥
- (성북동) 최순우 씨 한옥

하우스 투어에 참여하려면

2009년 4월에 있을 7차 하우스 투어에는 네덜란드 대사관저를 비롯해 아름다운 집 5곳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금마련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2만원이다.

문의 :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734-4945~7)



이희호 고문 자서전 출판기념회 열려

판매수익금은 '사랑의 친구들'에 기증하기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희호 고문. 원 안은 축사를 하고 있는 김성수 회장.

'사랑의 친구들' 이희호 고문의 자서전 '동행-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 출판기념회가 지난 11월 11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호·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성계, 학계, 종교계 등 500여 명의 하객이 참여해 이희호 고문의 자서전 발간을 축하했다.

자서전은 고난과 탄압과 빈곤을 이겨내야 했던 시간들의 기록으로 국회 등원~야당시절, 1972년 유신 이후 납치·투옥·사형선고로 고난의 시절, 국가적 난제해결과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물꼬를 튼 시기 등 86년 생애의 굴곡이 생생히 기록되었다. 또한 IMF때 늘어나는 결아동을 돕기 위해 '사랑의 친구들'을 설립한 배경과 이후 부군의 대통령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활동단체인 '사랑의 친

구들'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손숙 씨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출판 축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초대 총재의 인사로 시작됐다. '자서전의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은 사람으로서 아마도 저자는 또 다른 몇권의 자서전을 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상근 목사의 축하기도,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사랑의 친구들' 김성수 회장이 축사를 했다. 김성수 회장은 "이희호·김대중 부부의 일

생은 한국정치의 역사이며,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한국여성의 고난과 승리의 역사입니다. 두분은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승리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써오신 분들이며 분단시대의 고난을 누



김대중-이희호 부부, 김성수 회장, 박영숙 전 총재가 한자리에 같이 했다.

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나 통일의 역사를 연 분들입니다. 또한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분들이며 민족을 위한 귀한 자산입니다."라고 자서전 출판을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가 '동행-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 책 내용을 소개하고 성악가 정은숙 씨가 축하를 불러 분위기를 한층 따스하게 만들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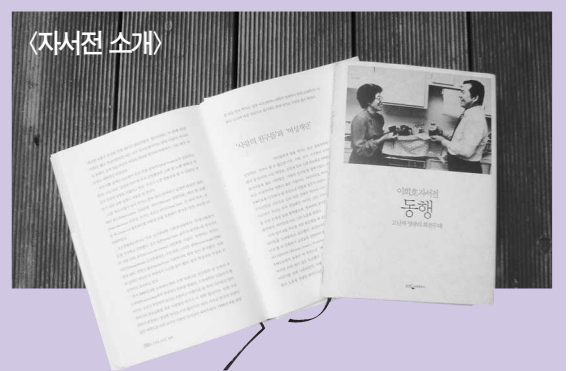
인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이희호 고문은 '이 자서전은 남편과 살아온 동행의 기록이며 회전무대와도 같았던 인생의 기록'이라고 인사한 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그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서전을 집필했습니다"라고 특별한 감사를 강조하며 "모든 분들이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인사로 큰 박수를 받았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힘든 길을 동행해 온 이희호 고문의 자서전 출간을 축하하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희호 고문은 11월 19일 자서전의 판매수익금 500만원을 '사랑의 친구들'에 기증했다.



박금옥 사무총장이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위) 5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출판기념회의 모습.



〈자서전 소개〉

동행-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는 ...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와 YWCA 총무로 일하기 시작한 젊은 이희호는 부드러운 성격에 강한 책임감으로 좋은 사회운동가 기질을 타고났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던, 여성계에서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던 운동가였다.

1962년 소장파 정치가 김대중과의 결혼으로 그의 인생은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남편에 대한 정권의 탄압으로 망명, 납치, 구금, 연금생활이 이어졌고, 종내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남편이 사형을 선고받는 모진 시련이 이어졌다.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부부를 넘어 독재와 싸우는 동지로 변해갔고 드디어 199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때 이희호의 나이 75세였다.

자서전은 이희호 개인의 기록이지만 파란곡절 많은 우리 현대사의 뒤안길이기도 하다고 밝힌 저자는 민주주의라는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 숭한 젊음이 스스로 고난 속으로 걸어들어갔으며, 수없이 많은 이의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한없이 고맙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윤택하지 않은 붓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글의 시작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라는 성경 인용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머리 위로 평화와 자유와 평안이 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사) '사랑의 친구들' 활동보고

- 정기총회** 제 10차(2.26)
- 이사회** 제 19차(2.26), 제 20차(8.28)
- 운영위원회** 제 101차(1.24), 제102차(2.21), 제103차(3.13), 제104차(4.30), 제105차(6.12), 제 106차(9.18), 제107차(10.24), 제108차(11.20)
- 기획자문위원회** 제 50차(5.20), 제51차(11.14)

사랑의 간식나누기 14기~15기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사랑의 간식나누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전세객 150여 노선의 항공편에서 뜯지 않은 채 나오는 주스류와 간식류를 기증받아 전국의 공부방에 6개월씩 나눈다.

14기 (20개 기관선정) 1월~6월

- 서울(2) : 독립문교회공부방, 월곡청소년센터
- 경기(14) : 경기지역아동센터, 성은지역아동센터, 미장지역아동센터, 꿈나무공부방, 양지지역아동센터, 초지마을지역아동센터, 팔곡늘푸른지역아동센터, 천사공부방, 보라매지역아동센터, 참행복한지역아동센터, 원종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지구촌지역아동센터, 부천지역아동센터
- 경북(3) : 예일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미석키즈지역아동센터
- 충남(1) : 에스더학교 지역아동센터

15기 (14개 기관선정) 7월~12월

- 서울(2) : 지예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 경기(6) : 조은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하늘꿈지역아동센터, 아가페지역아동센터, 새희망지역아동센터, 미라클랜드지역아동센터
- 충남(6) : 성남지역아동센터, 논산한빛지역아동센터, 하람지역아동센터, 강경지역아동센터, 하늘샘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사랑공부방

미스터피자와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캠페인'

한국미스터피자(사장 황문구)와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 캠페인'은 전국의 미스터피자 매장과 본사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공부방에 피자를 배달하고 100명의 어린이에게 1년간 사랑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미스터피자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외식의 기회가 별로 없는 빈곤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피자는 먹고 싶은 간식 1,2위를 다투는 인기 메뉴이다. 2008년 한해 동안에도 전국의 408개 기관에서 배달과 쿠폰을 이용한 푸짐한 피자파티가 열렸다.

- 피자나누기

2008년 한 해동안 259개 기관에 피자 5,690판, 149개 기관에 피자 쿠폰 3,918개 지원

- '사랑의 장학금'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월 5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 올 한해 총 6천

만원의 장학금이 어린이들의 생활용품 및 교육비로 사용되었다.

2008 빈곤지역 어린이 연합캠프(6차)

- 5.13 약정식
- 5.20 9개 연합체에 1차 지원금(70%) 송금
- 7~8월 연합체별 캠프진행
- 8.29~10.31 9개 연합체 결과보고서 수령 및 2차 지원금(30%) 송금

2008 사업설명회 및 교사교육



2008 '사랑의 친구들' 사업설명회 및 공부방 교사교육이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2008년 사업설명회는 한해동안 벌이게 될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교사교육은 공부방의 여건상 소진이 심한 교사들에게 자기성찰의 기회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에니어그램 교육으로 진행됐다. 2박 3일 동안 자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 교사교육은 열린신앙인사회학교 에니어그램영성센터 신미영 선생이 진행했다.

기간 : 2008. 5. 26일(월) ~ 28일(수), 여성플라자
주제 : 에니어그램을 통한 교육주체의 자기성찰과 현장 적용
인원 : 공부방 교사 18명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청소년의 자아성장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탐색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훈련으로 한국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인자)의 전문상담사가 직접 공부방을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2008년 상반기(9차)에는 11개 기관, 86명의 어린이가, 하반기(10차)에는 7개 기관 57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 9차 : 11개 기관 참여 / 2008년 3월~5월

새물지역아동센터(경기), 우리함께웃는지역아동센터(경기), 우리들의 공부방(서울), 응봉지역아동센터(서울), 풀씨배움터(경기), 모라야개동무지역아동센터(부산), 민들레배움터지역아동센터(경기), 은정지역아동센터(서울), 지예지역아동센터(성투), 은광지역아동센터(서울), 즐거운지역아동센터(서울)

- 10차 : 7개 기관 참여 / 2008년 9월~12월

강북지역아동센터(서울), 꿈나라지역아동센터(서울), 꿈나무지역아동센터(서울), 엄마손지역아동센터(부산), 우리지역아동센터(전남), 지역아동센터 나오타카카데미(서울), 지역아동센터 효도공부방(경기)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9차)



서울초청 행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빈곤지역 공부방 어린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울로 가족여행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울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0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어린이날을 전후해 초청행사가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소외가 극심한 내륙지역의 공부방 어린이들이 4월 23일~ 25일 서울을 방문했다. 어린이들은 2박 3일 동안 어린이 뮤지컬 관람, 63빌딩 체험, 삼성 어린이 박물관과 경복궁 관람, 외환은행 화폐전시실 등 서울의 곳곳을 둘러보고 마지막날에는 놀이동산 에버랜드를 찾아 TV에서만 보던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08 서울 초청행사를 위해 글로벌어린이재단(이사장 방숙자),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후원금을 지원했다.

일시 : 2008년 4월 23일~ 25일
인원 : 84명 / 장수꿈나무, 산서지역아동센터(전북 장수) 에스더, 탄천지역아동센터(충남 공주)

학습용품과 생필품 담은 북한어린이 돕기



2000년부터 계속돼 온 북한어린이 돕기 지원사업. 올해는 심각한 물자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학업에 필요한 문구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한데 모은 배낭 1,000 세트를 마련했다. 이번 북한 어린이 지원은 북한에 의료지원을 해온 유진벨 재단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유진벨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외곽지역 평북 구성시, 평남 안주시, 평남 순천시, 평남 천리마군 인민병원 등 4곳의 어린이가 이 물품을 받았다. 후원물품은 어린이용 배낭 속에 연필, 노트, 색연필, 필통 등 학습용품과 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생활용품이 함께 들어있다. 이 후원물품은 9월 10일 인천항에서 선적되어 14일 남포항으로 출발했다.

개별아동 후원

- 4.1 이화여고 학생(3명)에게 1년분 장학금 총 5,364,000원 지원
- 5.1 조세현 작가와 포토컬처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명에게 1년간 월5만원씩 지원
- 5.1 홍선주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명에게 1년간 월 5만원씩 지원
- 9.1 신선련(2명), 인재근(1명)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게 1년간 월 5만원씩 지원

기증물품 나누기

- 7.1 10개 기관에 아동도서 11box 지원 : 정미윤, 김승연씨 후원
- 10.24 토스앤리(최지원)씨로부터 'Memory Scrapbook kit'(어린이용 조립앨범) 2,500개 수령
- 간식나누기 14개 기관 총 467개 지원 (10.28~11.12)
-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34개 기관 총 1,178개 지원 (10.31~11.6)

캐나다 드림 서커스 '네비아' 문화초청 행사

7.20~21 캐나다 드림 서커스 (네비아)는 연극, 무용, 뮤지컬이 하나로 결합된 예술 서커스로 공연기획사 '크레디아'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 18개 공부방 초·중·고교생 197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2009 연합캠프 공모

연합캠프는 개별 공부방에서 진행하기 힘든 캠프운영을 효율화하고 공부방에서 아동들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연합캠프는 5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www.friends.or.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마감 : 2009년 1월 12일
문의 :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 (02-734-4945)